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 분석

이홍직*

An Analysis of 2012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for Exploring Physical Health Determinants of High School Students

Hong-Jik Lee*

요 약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를 사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제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 중 고등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각 관련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독립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t-검증과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이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를 통합 회귀분석에 근거해 제시하면,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저조한 경우에, 형제가 있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요인에서는 저학년일 경우에, 성적이 우수할수록, 문제행동 요인에서는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 variables of physical health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Specifically, it explored how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school factor, delinquent behaviors factor of the students affect their physical health using the 2012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Using the case of 36,889,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of tot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der, father's educational level, sibling(s), economic status, grade, academic record, problem drinking, drug 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variables of physical health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lso, it delivered som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physical health.

키워드

High School Students, Physical Heal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School Factor, Delinquent Behaviors Factor
고등학생, 신체적 건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e@kangnam.ac.kr)

접수일자 : 2014. 11. 24

심사(수정)일자 : 2014. 12. 15

게재확정일자 : 2015. 01. 12

1. 서론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은 보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1-11].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은 자아정체감의 혼란, 과도한 입시 부담, 가족 및 동료와의 관계 갈등 등이 과중되어 이들의 원만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다양한 고등학생 시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성관계 등 소위 문제 행동의 유혹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통신매체에의 중독 등에 대한 논의도 증가되고 있다. 다양한 이러한 문제행동은 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1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측면 및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신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개인적 특성요인과 학교요인, 그리고 문제행동요인들이 이들의 신체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연구도 제한적이었다[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2012년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제 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12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치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요인, 문제행동요인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지역과 학년에 따른 편중이 적은 표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3],[7-10].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조사 자료 중 36,889명의 고등학생의 응답치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내용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요인, 문제행동요인 관련 사항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각 변수와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형제의 유무, 경제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에 대한 변수를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각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형제의 유무는 가족 내 형제자매의 유무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님 두 분 모두와의 동거여부로 측정하였다.

2.2.2. 학교 요인

학교 요인은 학교유형은 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학년은 1, 2, 3학년으로 구분 측정하였으며, 성적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성적에 대해 상, 중, 하로 측정하였다.

2.2.3. 문제행동 요인

문제행동 요인은 본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측정방법을 참조하였다. 인터넷 중독여부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 K 척도를 활용한 원자료를 통해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각 4점

척도로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중독으로 간주하였다[3-4],[7-10]. 문제음주는 최근 12개월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홀로 음주, 절주 충고의 경험, 음주 후 운전 또는 음주자와의 동승, 음주 후 기억 끊김, 음주 후 시비 여부 항목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면 문제음주로 간주하였다[3].

표 1. 변수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 Measure | Factor | Variable | Classification |
|---------------------|--|-----------------------------|--|
| Independent measure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 Gender | 0 = Female 1 = Male |
| | | Education level (father) | 1 = Middle school or lower 2 = High school 3 = College or higher |
| | | Education level (mother) | 1 = Middle school or lower 2 = High school 3 = College or higher |
| | | Sibling | 0 = No 1 = Yes |
| | | Economic status | 2 = Middle 3 = High |
| | | Living w/ parents | 0 = No 1 = Yes |
| | School factor | Type of school | 1 = Non-profession 2 = Professional |
| | | Grade | 1 = 1st year 2 = 2rd year 3 = 3rd year |
| | | Academic record | 1 = Low 2 = Middle 3 = High |
| | | Internet addiction | 0 = No 1 = Yes |
| | | Problem drinking | 0 = No 1 = Yes |
| | | Delinquent behaviors factor | Sexual experience |
| Dependent measure | Health factor | Smoking | 0 = No 1 = Yes |
| | | Drug use | 0 = No 1 = Yes |
| | | Physical health | 5 point scale |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 경험 여부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흡연은 최근 30일 동안 흡연여부를, 약물사용은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 여부로 각각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2.2.4. 신체적 건강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5단위 측정치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을 의미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독립변인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요인, 문제행동 요인, 신체적 건강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과 각 독립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고자 t-검증과 F-검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검증(1)과 F-검증(2)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독립변인이 이들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식(3)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 = \frac{(M_1 - M_2) - (\mu_1 - \mu_2)}{S_{(M_1 - M_2)}} \quad (1)$$

$$F = \frac{\frac{\sum (X_1 - \bar{X}_1)^2}{n - 1}}{\frac{\sum (X_2 - \bar{X}_2)^2}{n - 1}} \quad (2)$$

$$physical\ health = a + b(\text{gender}) + c(\text{father's education level}) + d(\text{mother's education level}) + e(\text{sibling}) + f(\text{economic status}) + g(\text{living with parents}) + h(\text{type of schools}) + i(\text{grade}) + j(\text{academic record}) + k(\text{internet addiction}) + l(\text{problem drinking}) + m(\text{sexual experience}) + n(\text{smoking}) + o(\text{drug use}) \quad (3)$$

III.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3.1.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온라인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8,938명(51.34%), 여학생이 17,951명(48.6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이 16,163명(49.98%), 고졸 14,174명(43.83%), 중졸이하 2,004명(6.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 18,543명(56.90%), 대졸이상 12,050명(36.98%), 중졸이하가 1,996명(6.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

| Factor | Variable | Category | Frequency(%) |
|--|--------------------------|------------------------|---------------|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 Gender | Male | 18,938(51.34) |
| | | Female | 17,951(48.66) |
| | Education level (father) | Middle school or lower | 2,004(6.20) |
| | | High school | 14,174(43.83) |
| | Education level (mother) | College or higher | 16,163(49.98) |
| | | Middle school or lower | 1,996(6.12) |
| | | High school | 18,543(56.90) |
| | Sibling | College or higher | 12,050(36.98) |
| | | No | 3,552(9.63) |
| | Economic status | Yes | 33,337(90.37) |
| Low | | 10,239(27.76) | |
| Middle | | 17,578(47.65) | |
| Living w/ parents | High | 9,072(24.59) | |
| | No | 3,322(9.08) | |
| School factor | Type of school | Yes | 33,279(90.92) |
| | | Non-professional | 28,443(77.10) |
| | Grade | Professional | 8,446(22.90) |
| | | 1st year | 12,451(33.75) |
| | | 2nd year | 12,315(33.38) |
| | | 3rd year | 12,123(32.86) |
| | Academic record | Low | 14,605(39.59) |
| Middle | | 10,544(28.58) | |
| High | | 11,740(31.83) | |
| Delinquent behaviors factor | Internet addiction | No | 33,119(92.15) |
| | | Yes | 2,822(7.85) |
| | Problem drinking | No | 32,091(86.99) |
| | | Yes | 4,798(13.01) |
| | Sexual experience | No | 34,502(93.59) |
| | | Yes | 2,363(6.41) |

| | | |
|----------|-----|---------------|
| Smoking | No | 31,161(84.47) |
| | Yes | 5,728(15.53) |
| Drug use | No | 36,469(98.86) |
| | Yes | 420(1.14) |

형제유무에 있어서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33,337명(90.37%)으로 형제가 없는 경우 3,552명(9.63%)보다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중이 17,578명(47.26%), 하가 10,238명(27.76%), 상이 9,072명(24.5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33,279명(90.92%)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3,322명(9.08%)보다 많았다.

3.1.2. 학교 요인

학교 요인 중 먼저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28,443명(77.10%)으로 특성화계 고등학교 8,446명(22.90%)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12,315명(33.38%), 2학년 12,451명(33.75%), 3학년 12,123명(3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있어서는 하가 14,605명(39.59%), 상이 11,740명(31.83%), 중이 10,544명(28.58%) 순으로 나타났다.

3.1.3. 문제행동 요인

문제행동 요인 중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는 2,822명(7.85%)이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4,798명(13.01%)이 문제음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에 있어서는 2,363명(6.41%)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있어서는 5,728명(15.53%)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420명(1.14%)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수준

또한 본 조사대상 고등학교 학생의 신체적 건강 수준은 5.00만점에 3.72±0.85 정도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수준
Table 3.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 Variable | M ± D |
|--------------------------|-------------|
| Level of physical health | 3.72 ± 0.85 |

3.3. 독립변수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

3.3.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t=33.30, p<.00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F=12.16, p<.001$),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F=27.14, p<.001$), 형제가 있는 경우에($t=-3.10, p<.01$),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F=294.69, p<.00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t=-6.07,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
Table 4.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 Factor | Variable | Category | M ± SD | t/F |
|--|--------------------------|-------------------------------------|-------------|----------|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 Gender | Male ^a | 3.86 ± 0.85 | 33.30*** |
| | | Female ^b | 3.56 ± 0.84 | |
| | Education level (father) | Middle school or lower ^a | 3.66 ± 0.86 | 12.16*** |
| | | High school ^b | 3.71 ± 0.85 | |
| | | College or higher ^c | 3.75 ± 0.84 | |
| | Education level (mother) | Middle school or lower ^a | 3.61 ± 0.89 | 27.14*** |
| | | High school ^b | 3.72 ± 0.85 | |
| | | College or higher ^c | 3.75 ± 0.84 | |
| | Sibling | No ^a | 3.68 ± 0.88 | -3.10*** |
| | | Yes ^b | 3.72 ± 0.85 | |
| Economic status | Low ^a | 3.56 ± 0.90 | 294.69*** | |
| | Middle | 3.74 ± 0.81 | | |
| | High ^c | 3.86 ± 0.84 | | |
| Living w/ parents | No ^a | 3.63 ± 0.90 | -6.07*** | |
| | Yes ^b | 3.73 ± 0.85 | | |
| School factor | Type of school | Non-professional ^a | 3.73 ± 0.85 | 4.97*** |
| | | Professional ^b | 3.68 ± 0.88 | |
| | Grade | 1st year ^a | 3.74 ± 0.83 | 9.38*** |
| | | 2nd year ^b | 3.72 ± 0.85 | |
| | | 3rd year ^c | 3.69 ± 0.87 | |
| | Academic record | Low ^a | 3.65 ± 0.89 | 81.99*** |
| Middle ^b | | 3.73 ± 0.83 | | |
| High ^c | | 3.79 ± 0.83 | | |
| Delinquent behaviors factor | Internet addiction | No ^a | 3.72 ± 0.85 | 0.16 |
| | | Yes ^b | 3.71 ± 0.84 | |
| | Problem drinking | No ^a | 3.73 ± 0.84 | 5.52*** |
| | | Yes ^b | 3.66 ± 0.93 | |
| | Sexual experience | No ^a | 3.72 ± 0.85 | 0.33 |
| | | Yes ^b | 3.71 ± 0.96 | |

| | | | |
|----------|------------------|-------------|---------|
| Smoking | No ^a | 3.72 ± 0.85 | -1.35 |
| | Yes ^b | 3.73 ± 0.90 | |
| Drug use | No ^a | 3.72 ± 0.85 | 5.05*** |
| | Yes ^b | 3.51 ± 1.08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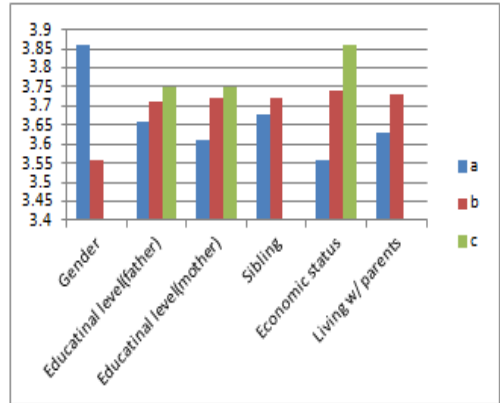


그림 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차이

Fig. 1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3.3.2. 학교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학교 요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일반계 학생의 경우가 특성화계 학생보다($t=4.97, p<.001$), 1학년이 2, 3학년보다($F=9.38, p<.001$),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t=81.99,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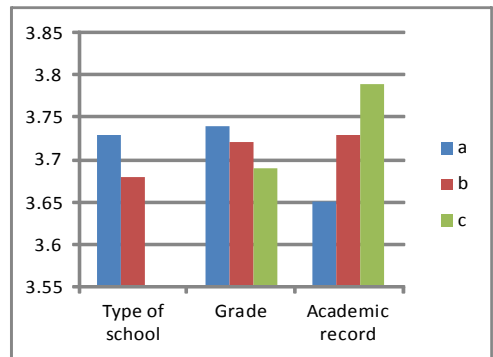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차이

Fig. 2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factor

3.3.3. 문제행동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문제행동 요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이($t=5.52, p<.001$), 약물을 사용 하지 않는 학생이($t=5.05,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성관계 경험, 흡연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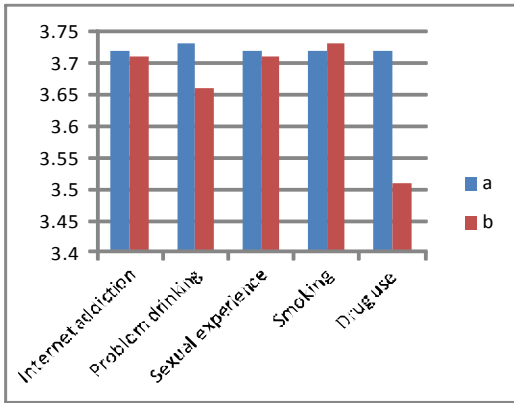


그림 3. 문제행동 요인에 따른 신체적 건강수준 차이
Fig. 3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delinquent behaviors factor

3.4.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학교요인, 문제행동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B=-.29, p<.001$),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B=-.02, p<.05$), 형제가 있는 경우에($B=.06, p<.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B=.12,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요인에서는 저학년일 경우에($B=-.01, p<.05$) 성적이 우수할수록($B=.03,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행동 요인에서는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B=-.08, p<.001$),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B=-.15, p<.05$)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Determinants of level of physic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 Variable | B | SE | Beta |
|--------------------------|----------|------|----------|
| Female | -0.29 | 0.01 | -0.17*** |
| Education level (father) | -0.02 | 0.01 | -0.02* |
| Education level (mother) | 0.01 | 0.01 | 0.01 |
| Sibling | 0.06 | 0.02 | 0.02** |
| Economic status | 0.12 | 0.01 | 0.10*** |
| Living w/ parents | 0.01 | 0.04 | 0.00 |
| Professional school | 0.00 | 0.01 | 0.00 |
| Grade | -0.01 | 0.01 | -0.01* |
| Academic record | 0.03 | 0.01 | 0.03*** |
| Internet addiction | 0.01 | 0.02 | 0.00 |
| Problem drinking | -0.08 | 0.02 | -0.03*** |
| Sexual experience | -0.01 | 0.02 | 0.00 |
| Smoking | 0.00 | 0.02 | 0.00 |
| Drug use | -0.15 | 0.06 | -0.02* |
| Constant | 3.56*** | | |
| F | 97.53*** | | |
| R-square | 0.04 | | |

* $p<.05$, ** $p<.01$, ***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 자료를 통해 고등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고등학생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아버지 학력, 형제의 유무, 가계경제수준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남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형제가 있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요인에서는 학년, 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저학년일 경우에, 성적이 우수할수록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행동 요인에서는 문제음주, 약물사용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의 신체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전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취약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고생의 건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즉 여고생들을 위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과 체육활동 등의 건강 증진활동의 마련과 활성화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오히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는 고학력의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학력증진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는 점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중앙, 지방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요인에서는 고학년생이 건강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는 고학년이 입시 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학년에게는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프로그램의 마련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또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신체적 건강도 취약하다는 점은 이들을 위해서도 학업부문의외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제행동 요인에서는 문제음주, 약물사용을 하는 경우 이들의 신체적 건강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음주와 약물에 대한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사전예방, 사후치료 등의 노력 등이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References

- [1] J. Choi and M. Kim, "Factors Influencing Health Risk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and Nursing*, vol. 15, no. 2, 2009, pp. 182-189.
- [2] D. Kim, Y. Kim, S. Kim, Y. Jang, M. Jang, and J. Park,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2012, pp. 937-944.
- [3] H. Lee,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Korean Adolesc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2, 2013, pp. 1819-1824.
- [4] S. Kim,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2013, pp. 165-172.
- [5] J. Shim, J. Seoung, M. Lee, and S. Song,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2013, pp. 181-190.
- [6] T. Park, M. Jung, S. Jeong, H. Park, C. Han, S. Hong, S. You, and K. Moon,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2013, pp. 505-515.
- [7] S. Park and H. Lee,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2013, pp. 291-299.
- [8] H. Lee, K. Kim, K. Kim, G. Nam, K. Min, S. Lee, C. Jeong, and S. Park,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moking Behavior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5, 2013, pp. 659-702.

- [9] H. Lee, K. Kim, K. Kim, G. Nam, K. Min, S. Lee, C. Jeong, H. Lee, and J. Park,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nd Drug Us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6, 2013, pp. 963-969.
- [10] J. Park, K. Kim, K. Kim G. Nam, K. Min, S. Lee, C. Jeong, H. Lee, and H. Lee,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Level of Stress among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6, 2013, pp. 971-977.
- [11] J. An and H.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 Inequality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4, no. 2, 2013, pp. 205-231.

저자 소개

이흥직(Hong-Jik Lee)



1993년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문학사)

1995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andel School of Appli-
ed Social Sciences 졸업(Master of Science in Social
Administration)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복지, 사회복지 디지털 콘텐츠